

# 2008년 이후 미국에서의 계급투쟁

로렌 골드너

## 배경

2007-2008년 금융 붕괴 이후 미국에서의 계급투쟁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역사, 특히 비공인파업(wildcat) 반란이 끝났던 1960년대 후반 또는 1970년대 초반으로부터 40년 동안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973년쯤부터 미국 노동계급의 역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패배와 후퇴가 거의 중단 없이 계속된 과정이었다. 이 시기는 “오로지 한쪽만이 전투를 수행하는 계급전쟁”으로 묘사되어 왔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실질임금은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15% 하락했다. ‘한 개의 급여봉투로 살아가는 블루칼라 가족’은 이미 1960년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전형적인 노동계급 가정에는, 두세 개의 급여봉투가 필수적이며,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개는 오로지 주택비용을 감당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비용은 가구 소득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전업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적어도 10% 늘어났다. 실제로 노동력 구성은, 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1주에 70시간을 노동하는데 다수의 주민은 비정규직이 되어 불규칙하게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모래시계 사회”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분의 대략 70%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북동부의 산업지대 대부분은 “사양지대”(rust bowl)로 전락했으며, 적당히 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기존의 블루칼라 일자리들이 (월마트 같은) 저임금의 막다른 “서비스” 일자리들로 대체되었다.

미국은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장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날마다 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주민의 2%, 즉 7백만 명이 (그 대부분은 흑인과 라티노인데) 감옥 안에서 또는 가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마약과의 전쟁”에 따른 결과다. 1) 일자리를 잃은 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몇십 만 명에 이르면서 집 없는 노숙자가 폭증하자, 경찰의 괴롭힘, 감옥이나 다름없는 냄새나는 보호소로 몰아넣기, 노숙자의 범법적인 취급 등으로 “빈민에 대한 전쟁”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사회적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 파업 활동의 축소

1970년대 이후 자본가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비공인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고전적인 파업조차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1970년대에는 해마다 미국 노동자들 가운데 20%가 파업에 참여하거나 직장폐쇄에 연루되었지만, 2009년에는 그 수치가 0.05%뿐이었다.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들은 탈산업화 때문에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1955년의 조합원 수는 전체 노동력의 35%를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12%로 떨어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조합원의 다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속해 있다. 2)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1973년까지 주요 노동조합들의 다수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비공인파업으로 반란에 나선 평조합원들을 상대로 싸웠다. 그들이 조합원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자면 “노사협조주의”(business unionism)를 계속해 나갈 능력조차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임금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합법성의 틀을, 그리고 협소하게 규정된 “교섭단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실히 패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 소비자들이 쌓아올린 빚

미국의 노동계급과 “중간계급”<sup>3)</sup>은 1970년대 이후 실질임금 하락을, 소비자 신용의 계속된 확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받았다. 소비자 신용은 1990년대부터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대중매체가 “주택가격 불패”라는 신화를 떠들며 대면서 주택거품이 부풀어 오르자, 더욱 확장되었다. 2000년대에는 “서브프라임” 거품을 통해 소비자 신용이 더욱 확장되었는데, 그 시절에는 사실상 누구나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나아가 모기지 대출을 한 번 더 받고, 심지어 이 가공의 “재산들”을 담보로 새로운 신용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00-2003년 닷컴거품이 붕괴한 뒤 이루어진 “회복”의 대부분은 주택건설 또는 (가전이나 가구 같은) 그 관련 산업과 연계된 것이었다.

이처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떠나 노동자들이 소비자 부채를 쌓아올리고 있을 때,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가부채도, 그리고 최소한 10조 달러에 이른 (해외에서 보유한 달러 총액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의 자산을 뺀) 대외부채도, 전례 없이 함께 늘어났다.

그러므로 2007년의 부동산 거품 파열 그리고 2008년의 금융부문 발작과 함께 현실로 터져 나온 공황은, 1970년대 이후 부채를 쌓는 대신 시간을 벌여 왔던 오랜 과정의 최종 귀착점이었다. 그 밑바닥에는 “실물” 경제에서의 이윤의 위기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르크스가 사용한 의미에서 가치의 위기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글의 목적에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니 여기까지 하겠다.

## 정치적 동학

[1930년대 대공황의 초기인] 1929-1934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의 대다수는 초기에 망연자실한 침묵으로 공황에 반응해 왔다. 그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미친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바마의 당선은 사실상 선거 몇 주 전인 10월에 터진 공황 덕분이었다.) 오바마는 “우파”(공화당,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는 공화당의 급진우파인 티파티<sup>4)</sup> 분파)에게서 “사회주의자”로 (또한 “무슬림”으로,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자”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사실 그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지 부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파적인 정책을 수행했다. 그런데 오바마의 정책에 대한 반응은 조용했다. 오바마의 (미국적인 어법에서) 자유주의적인 기반 덕분에 오바마 정부는 모든 사안에서 좋게 해석을 받았다.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했으며, 이는 점점 더 국내의 반대파들<sup>5)</sup>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오바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서의 패배하고 있는 전쟁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화했다.

오바마의 “경제팀”에는 악명 높은 용역업자들(hatchet men)이 포함되었다. 이를테면 로렌스 서머스(미국 재무부 국장으로 1997-98 동아시아 위기 때 한국 때리기를 지휘했다), 폴 볼커(연방준비은행 총재로서 1979-82년의 깊은 불황을 관리했다), 팀 가이트너(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전 총재) 등이다. 오바마의 경제팀은 붕괴하는 금융부문과 부동산부문에 거대한 구제금융을 안겨주었다. 몇조 달러를 퍼부어 악성 부채에 대해 100% 보증해 주었다. 반면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집을 빼앗기는 민중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의 전체주의적인 의료 “개혁”안은 (이 또한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았지만) 실제로는 퇴행하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민영 의료보험 회사들이 작성한 것이었다.<sup>6)</sup> 2010년 12월 오바마는 의회와 “협상”해서 실업수당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대한 감세도 마찬가지로 연장했다. 미국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입을 메우느라 2001년 이후 해마다 2천억 달러를 충당해야 했다. 반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때문에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추방된 불법체류 이주자 수는 부시 집권기간 전체보다 더 많았다. 추방된 이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부문에서 일하려고 미국에 왔다가 공황이 닥치면서 일자리를 잃었던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자들이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둘러싸고 6월과 7월 워싱턴에서 거짓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하원을 움직이는 거대한 지렛대를 갖게 된 소수의 급진우파(티파티)는 오바마가 훨씬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위장막을 제공했다. 오바마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거대한 삭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급권자들”이란 빈민과 노인을 위한 의료체계, 그리고 퇴직자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의료체계의 수혜자들을 공격적으로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용어다.

이 모든 것들은 민주당의 역사적 역할이란, 만일 공화당이 수행했으면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을 정책들을 실현해 내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우파 정당과 극우파 정당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적어도 1880년대 이후, 두 지배적인 정당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책을 펼쳐 왔다. 전체 주민 가운데 가난한 50%는 투표하지 않았고, 공식 정치는 가식과 허위에 함몰되면서 전반적인 수동성과 냉소주의를 더 부채질했다. 이러한 맥락들은 오늘날의 티파티같이 이상한 현상들을 설명해 준다. 사람들이 결집할 때, 우파 포퓰리즘과 (오늘날에는 덜 두드러지지만) 좌파 포퓰리즘은 (즉 “보통사람들”의 반란은) 체제의 첫 번째 안전밸브인 것이다.

2010년 11월, 오바마의 “사회주의적” 조치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의료 “개혁”, 금융의 정부규제에 관한 물 타기 수준의 상징적인 시도들)에 대한 우파 포퓰리즘의 분노<sup>2</sup>는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의 장악이라는 승리를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파이자 상원의 사실상 다수파였던 지위를 상실했다. 2008년 오바마의 기반 가운데 많은 부분은,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에 사실상 공공연하게 부응하는 오바마의 통치를 보면서 실망하여 (또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냥 집에 있었다. (공개적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파 포퓰리즘의 분노는 상당 부분 오바마의 검은 피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 “불황”과 침묵의 저항

2008년 가을 이후,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9.1%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로는 15%에 가까울 것이다. 이 통계에서는 한 달에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취업자”로 간주한다. 일자리 찾기를 완전히 포기한 몇백만 명은 아예 배제된다.

몇십만 명은 일자리를 잃은 뒤 집까지 잃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벨리,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등 이전의 “호황” 지역들에서 그랬다. 몇백만 명은 집값이 떨어져서 모기지 대출액이 집값보다 더 많은 상태에 놓여 있다. 빈 집들이 몇년째 팔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1년 8월 초순에, 세계 주식 시장이 또 자유낙하 중이다. 여기에 거론한 모습들이 며칠 안에 낡은 것이 될지 모르겠다.)

주택시장 붕괴와 관련된 하나의 눈에 띄는 현상은 압류<sup>8</sup>와 퇴거<sup>9</sup>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1930년대 초와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 때에는 (보기를 들어) 뉴욕 시에서 퇴거<sup>10</sup>를 위협당하는 이웃을 지키려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의 압류조치로부터 농장 부지를 지키려고 농부들이 (종종 무장하고서) 달려들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파탄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에 살고 있는 한 동지가 전하는 바로는, 압류나 퇴거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자신들의 상황을 단순히 “부끄러워하고”, 이웃들에게 감추며, 밤에 조용히 떠난다고 한다.

## 의료보험과 연금에 대한 공격

2007-2008년 이후, 명시적인 계급투쟁은 작업장으로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파산한 국가와의 대결이라는 영역으로 상당 정도 이동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블루칼라 산업부문에서 노동자들이 예상보다 일찍 패배한 데 따른 결과였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유화의 우월성에 관한 몇십 년에 걸친 선전 이후, 특권적이고 돈만 많이 받아먹는 기생충들로 악마화 되었는데, 이는 실제로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마지막 남은 노동자들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결에서 거의 어디서나 나타나는 요소는, 미국의 퇴행적인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 아래서, 의료보험료를 둘러싼 것이다. 공황이 충분히 분출하기 전에도, 터져 나온 파업들 가운데 다수는 의료보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sup>11)</sup>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을 가진 이들에게는, 일자리와 연계된 민영 의료보험이 임금 그 자체만큼이나 또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

공황 때문에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각 정부들은 퇴직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보험과 연금을 지급할 능력을 점점 상실해 왔다. 모든 수준에서, 정치인들, 선동꾼들, 썩고탱크들은 “급상승하는 의료비”를 한탄한다. 그러나 민영 보험회사들이 의료부문을 통제하게 된 진짜 이유나 거대 제약회사들이 부풀린 약값에 관한 진지한 토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몇달 전 플로리다의 어느 남성이 감옥에서라도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은행 강도짓을 해서 붙잡힌 사례가 있다.) 거의 모든 주류 정치인들이 거둬들이는 불임으로써, 가장 부유한 10% 또는 1%가 내는 세금이 점점 줄었던 장기적 추세 또한, 많은 주 정부와 시 정부들을 파산으로 내몬 이유였다.

의료보험 위기와 함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의 연금이 위기에 빠져 있다. 1990년대부터,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은 완전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401K형” 퇴직연금으로 연금적립 방식을 바꾸었다. 401K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달리 고용주와 노동자 둘 다 기금을 적립하며, 주식시장에 투자된다. 물론 주식투자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기금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401K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퇴직자들은 기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지급하던 액수의 10~33%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한창 때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는, 의료지원과 사회보장에 대한 의회의 예상되는 공격과 결합되어, 노인들의 빈곤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공황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면서, 주 정부와 시 정부는 퇴직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009년 11월 필라델피아 운송노동자들은 연금 수당을 늘리려고 6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 최후의 산업 “노동자 요새”, 전미자동차산업노조(UAW)의 몰락

전미자동차산업노조(UAW)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 쓰리” 완성차업체들과 2007년에 ‘이중임금제 협약’을 맺은 것은, 미국 노동자계급에게 피부어진 몇십 년에 걸친 공격이 거둔 핵심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폭넓은 반대가 올라왔지만, UAW는 저돌적으로 밀어붙여 이 협약을 관철시켰다. ‘이중임금제’ 협약에 따라, 빅 쓰리에 새로 취업하는 노동자는, 기존 나이든 노동자들이 시간당 27달러를 받는 것과 달리, 시간당 14달러를 받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AW가 맺은 협약은 다른 많은 산업부문을 “선도”하는 협약으로 작용했다. 2007년 UAW가 협약을 맺은 뒤 3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에서 이중임금제 협약을 맺은 노조의 수는 2%에서 12%로 늘었다.

2009년 금융 붕괴의 한복판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선언한 뒤, 미국 정부에게 인수되었다. 파산 선언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들의 부채 의무를, 특히 퇴직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에게 지고 있던 부채 의무를 벗어던지려는 전략이었다. 몇주 뒤, 두 회사가 파산으로부터 소생했을 때, UAW는 두 회사 모두에서 주요 주주가 되어 있었다.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는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보장 기금에 지고 있던 500억 달러의 빚에서 벗어났다. VEBA(노동자와 수혜자의 자발적인 연합)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금이 UAW에 의해 관리될 예정인데, 그 운명은 오로지 GM과 크라이슬러 주식의 시장 가치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일 주식가격이 폭락하거나 두 회사 가운데 어디든 또 파산을 겪게 될 경우, 2백만 명의 UAW 퇴직자들과 그 가족들은 아무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연금은 삭감되거나 헐값으로 미국 정부에게 인수될 것이다.

##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 위스콘신

60년 동안 미국 산업계에서 임금 협약의 모델로 존재해 왔던 노조(UAW)를 KO시킨 뒤<sup>12)</sup>, 자본은 2011년 들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서비스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공세를 강화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지만,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주, 그리고 뉴욕 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위스콘신에서는 새로 당선된 공화당 소속 주지사 스콧 워커가 단체교섭을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

의 (그리고 가장 오래 계속되는) 노동자계급의 결집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거둔 와중에, 스콧 워커와 공화당은 위스콘신 주 정부를 장악했다. (워커가 극우 성향의 억만장자 코흐 형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코흐 형제는 명확하게 위스콘신을 다른 모든 곳에서 사용될 전략과 전술을 실험하는 곳으로 여겼다.) 권력을 잡자마자, 그들은 부자와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대폭 줄여 주었다. 그리고선 주 정부의 예산이 적자라고 선언했다. 자신들이 단행한 부자감세 때문에 예산적자가 훨씬 악화되었는데도 말이다. 주지사 워커는 사회적 서비스를 대폭 감축시키고, 주 정부가 마음대로 사유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을 제안했다.<sup>13)</sup> 즉시 주 전역에서 교사들이 학교를 뛰쳐나오고 “드러눅기”에 들어가면서 비공인 파업으로 발전했다. 메디슨에 있는 주 의회 의사당 건물을 수천 명이 몇주 동안 점거했다. 대중 집회가 주말마다 열렸는데,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3월 12일에는 12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 운동의 신호와 슬로건은 명백히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점거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집트와 달리, 위스콘신의 운동은 워커를 몰아내는 데 실패했다.)

위스콘신의 운동에 나타났던 기본적인 문제는 민주당과 노동조합이 이 운동을 통제할 능력, 특히 주 전역의 총파업을 향한 실질적인 감성이 자라나는 데 찬물을 끼얹을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패턴은 다른 주들에서도 다시 또 다시 되풀이되었는데, 결국 다른 어떤 곳에서도 위스콘신 정도의 운동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노조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노조는 민주당이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채워주는 주요 기부자인데, 그 돈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코네티컷 주에서 노조의 강력한 재정적 후원을 얻고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는 워커가 한 것과 비슷하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삭감을 밀어붙이면서도, 단체교섭의 걸모양만은 그대로 남겨놓았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다른 주들은 뒤죽박죽이었는데, 몇몇 경우에는 주 정부가 위스콘신의 대결이 준 충격 때문에 전면적인 대결에서 후퇴하기도 했다.

위스콘신에서는, 대중운동이 3월에 정점을 지난 이후, 민주당과 노조가 이 운동을, 여러 공화당 정치인들을 소환하고 민주당 인사들을 선출하려고 시도하는, 선거주의의 길로 몰아넣었다. 2010년 11월 선거에서 권력을 잃기 전에 민주당 주 정부가 이미 심각한 긴축을 부과했으며, 더 많은 긴축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감추면서 말이다.<sup>14)</sup>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과 노조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저항을 사회적으로 통제한다는, 자신들의 역할을 미국 전역에서 잘 수행했다.<sup>15)</sup>

## 작은 투쟁들과 패배들

미국에서 벌어진 작은 투쟁들 또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 패배로 귀결되었다. 2008년 11월, 시카고에 있는 리퍼블릭도어스앤윈도우스 공장의 노동자들은 밤새 공장에서 기계들이 사라지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장 폐쇄가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신호였다. 2008년 12월 2일, 회사 경영자가 공장이 사흘 내로 폐쇄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폐쇄가 예정된 날인 12월 5일, 주로 흑인과 라티노로 구성된 240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해고수당과 의료보장 혜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른 노조들에 비해 약간 더 전투적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전미전기산업노조(UE)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다.) 12월 10일, 노동자들은 1인당 평균 7천 달러의 해고 수당과 두 달 치 의료보장을 받아들였다. 경영자는 신용거래를 중단한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에 가까이 있는 아이오와 주에 노조가 없는 창문 공장을 인수했다. 점거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은행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다른 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식량, 담요, 침낭을 보내왔다.

리퍼블릭 노동자들은 일정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일자리를 잃었다. 이 투쟁을 떠들썩하게 떠벌렸던 다수의 “진보적” 노동운동과 좌파 세력들 가운데 다수는 이 작은 사실을 간과했다.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온 다른 투쟁은 뉴욕 시에 있는 스텔라 도로 비스킷 회사에서 벌어진 파업이었다. 2008년 8월 13일, 제빵사노조에 속한 135명의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교섭을 벌이다가 파업을 시작했다. 원래 스텔라 도로는 제빵 분야에서 몇십 년을 일한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가족 경영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한 헤지펀드가 임금을 28% 삭감하고, 토요일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을 폐지하며, 의료보험료 20%를 노동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노조는 합법주의 전략을 고수했다. 파업파괴자들이 공장에 들어가고, 트럭운전사들이 밀가루를 배달했지만, 이를 막으려는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파업을 다른 제빵 회사로 확산시키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다. 2009년 5월,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없이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중재” 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우호적인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게 했다. 파업은 2009년 6월말까지 계속되었고,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헤지펀드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7월초, 스텔라 도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던 그날, 경영진은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고, 그렇게 실행했다.

2010년 1월 하순, 캘리포니아 주 보론 시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광산회사인) 리오 틴토에 소속된 5백 명의 광산 노동자들은 연금을 없애고, 임금을 삭감하며, (“세계적 경쟁”에 의해 정당화된) 노동 “유연화”를 도입한다는 단체협약을 거부한 뒤 직장폐쇄를 당했다.

5월 중순, 국제항만노조(ILWU) 제30지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노동자들에게서 3대 1의 차이로 승인되었다. 새 협약은 1년에 2.5%의 임금 인상을 포함했다. 대신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던 확정급여형 연금을, 노동자가 납입하되 4%만 회사가 부담하는 401K형 연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급병가는 1년에 14일에서 10일로 줄었다.

[새 단체협약을 받아들이기 전에] 국제항만노조는 다시 한 번 완전히 합법주의적이고 지역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파업을 실행했다. 파업파괴자들과 관리자들이 경찰의 대대적인 호위 아래 파업 기간 내내 일을 했다. 보론의 노동자들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보론 지역에서 그리고 인근의 로스엔젤레스에서 폭넓은 지원을 조직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대신, 노조는 리오 틴토의 주주총회에 가서 무기력한 호소를 하고, 영국 영사관 앞에서 미국 민족주의 집회를 열 뿐이었다.

리퍼블릭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노조와 “진보적” 좌파세력들은 승리를 선언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미국 북동부의 통신 노동자 4만 5천 명이 베리존 사를 상대로 막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전미통신노조(CWA)와 국제전기산업노조(IBEW)에 속해 있다. 베리존 사는, 유선전화 서비스가 계속 감소하는 대신 휴대폰과 인터넷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고, 작업규칙을 바꾸며, 노동자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분담하도록 단체협약을 “조정”하기를 원한다.)

## 공교육에 대한 공격과 학생들의 저항

교육은 국가의 긴축이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재생산의 또 다른 요소다. 모든 교육은 본질적으로 계급 차별과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금융, 보험, 부동산 같은) 일자리에서 작업장 규율과 사회적 규율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학벌 장치다. 공산주의 사회는 교육을, 그리고 “노동”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어쨌든 이 점은 잠시 제쳐 놓자.

(주로 사립이며 요즘에는 대개 1년에 4만 달러가 들어가는) 엘리트 학교 밑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주립 단과대학과 지역 전문대학은, 탈산업화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계급 청년들이 맥도널드 수준보다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주된 경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공교육이 거의 무료였다. 그런데, (종합대학, 주립 단과대학, 지역 전문대학 등) 모든 수준에서 수업료가 해마다 몇천 달러씩 올랐다.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려면, 졸업할 때까지 총 10만 달러를 빌려주는 학생대출을 통해 빚을 쌓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파트타임 노동을 해야 한다. 1978년 이후 우파 포퓰리즘의 “세금 혁명”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삭감 때문에, 미국 내 1위를 기록하던 캘리포니아 주 (초중등교육) 공립학

교들의 질은 지난 몇십 년을 지나면서 거의 꼴찌로 떨어져 미시시피 주나 루이지애나 주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학교들은 계속 늘어나는 학급당 학생 수, 부적합한 교육자재, 교사노조들에 대한 공격, 미국에서 가장 낮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 등과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과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 치솟는 투옥률이 결합되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대에 감옥에 있는 흑인 숫자가 대학에 있는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명을 얻었다.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공히 이러한 장기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크게 커리큘럼을 재편하고, 교사 수를 줄이며, 모든 수준에서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보게 하는 시도를 했다. (미국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국제적인 비교시험에서 최하 위권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09년 가을, 캘리포니아 대학(UC) 로스엔젤레스 캠퍼스와 버클리 캠퍼스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시위에 나섰다. 버클리에서는 몇천 명의 학생들이 경찰과 부딪치기도 했다. 이것이 서곡이 되어, 2010년 3월 4일에는 전국적인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도 캘리포니아 주는 첨단에서 있었다. 이번에는 운동이, 상대적으로 엘리트 교육인 캘리포니아 대학을 넘어, 주립 단과대학과 고등학교로까지 멀리 뻗어나갔으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학교를 박차고 나갔다. 오클랜드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몇백 명의 학생들이 여러 시간 동안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시위는 3월 4일 시위가 일어난 20여개 주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였다. 이날 벌어진 시위 가운데 어떤 것도 삭감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 캘리포니아 감옥에서의 단식투쟁

대량 실업, 경찰과 교도관의 공공노조<sup>16</sup>, 감옥 체계 안에 흑인과 라티노 청년들이 창고에 저장되듯이 갇히는 것 등등 찌그러지는 사회적 재생산의 모든 추세들은 2011년 7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어진 커다란 감옥 반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sup>17</sup>

여러 해 동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감시가 엄중한” 감옥을 짓는 데서 “전위”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시설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펠리컨 만에 있다. 7월의 첫 세 주 동안, 펠리컨 만에 있는 SHU 교도소의 콘크리트 독방에 갇힌 수감자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들은 집단체벌 중지, 교도소 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밀고”<sup>18</sup>의 폐지, 교육적 프로그램, 인간적 접촉, 주마다 전화통화, 햇빛에 대한 접근권, 식사 질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단식투쟁은 13개 교도소로 퍼져 나갔고, 결국 6천 6백 명의 죄수가 참여했다. SHU 교도소의 죄수들은 창문도 없고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작은 독방에 날마다 22시간 30분씩 갇혀 있다. 단식투쟁은, 교도소 당국이 7월 21일, SHU 수감자들이 벽걸이 달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 독방에서) 겨울철에 양털 모자를 쓸 수 있게 하며 강제적인 밀고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끝났다.

(적정 인원의 200%를 수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들의 조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반동적인 미국 대법원마저 이 교도소들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의 수정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을 정도다.

## 결론

이 글을 쓰는 동안, 주류 언론들은 미국에서의 “더블 딥”과 “불황”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떠들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불황”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더 악화되려는 참이라고 어렵지 않게 결론내릴 수 있다.

2007-2008년 이후 공황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단지 자본을 위해 이전 상태를 회복시켜 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다. 은행과 부동산의 부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몇조 달러를 퍼부어 주면서 말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몇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임금, 의료보험, 연금, 주택압류, 교육 등 총체적 임금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허물어진 사회기반 시설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2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에

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사회적 지표들”<sup>19)</sup>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직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심하게 양극화된 사회임을 보여준다.

1966-1973년 노동자계급의 파업물결 이후, 미국의 노동자들은 몇십 년 동안 방어적인 투쟁들에서 차례차례 패배하면서 후퇴를 겪어 왔다. 이러한 “천천히 이루어진 경착륙”에서, 그리고 특히 2007-2008년의 붕괴 이후에, 1945년 이후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는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열려 있는 문제다.

- 1) 1970년 이후 늘어난 감옥 인구 숫자는 같은 기간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 숫자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미국의 감옥 인구는 세계 감옥 인구의 25%에 이른다.
- 2) 게다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는 반(反)노동계급적인 경찰과 교도관이다.
- 3) 이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주택 소유 그리고 만족스런 은퇴생활이라는, 이제는 거의 소멸된 “아메리칸 드림”과 밀접히 결합된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용어이다.
- 4) 티파티(Tea Party)는 2009년 공화당 우파의 한 세력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정치적 풍경 속을 드나들며 그 일부가 되어 왔던 우파의 대중선동용 분노를 다른 조직된 정치그룹들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유럽에는 티파티 이데올로기에 상응하는 것이 없다. 티파티는 모든 수준의 정부 예산이 엄격하게 균형을 유지하면, 그래서 해방된 “자유 시장”을 감독하는 “최소국가”를 실현하면, 미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노인, 백인, “중간계급과 중상계급” 등의 “줄어드는 인구층”을 대표한다. 티파티가 주장하는, “최소국가”가 감독만 하는, 해방된 “자유 시장” 경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심지어 1914년 이전 시기에 도 말이다. 그 시절에 국가는 “GDP”의 훨씬 적은 부분을 담당했지만, 여전히 관세정책, 남부의 노예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인디언의 제거, 철도와 수로를 위한 토지몰수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티파티 신기루의 진짜 내용은 국가억압을 거대하게 강화하고, (하락하는) 미 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반면, 국가에 남아있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의 급진우파는 국가의 모든 “사회적” 요소들을 1930년대의 “사회주의적” 뉴딜과 1960년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와 결부 짓는다.) 티파티의 사회적 기반은 압도적으로 백인에 있다. 이들은 2050년이면 백인이 소수가 될 거라는 인구통계학적 예측 그리고 흑인 대통령의 등장에 깜짝 놀라, (대개) 말은 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분명하게 인종주의를 알세우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티파티의 실제 기능은 (오바마와 같은) “중도”세력이 “시장 근본주의자들”에 맞서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인 것처럼 보이게 해줌으로써, “중도”세력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 5) 2010년 9월, 미국 내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성향의) ‘자유의 길’ 조직 구성원들은 여러 도시에서 FBI의 급습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전자장비를 압수당했다. 그들은 (콜롬비아의) FARC, (팔레스타인의) PFLP,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테러주의” 그룹들과 접촉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해외 테러주의 조직들” 가운데 하나에 관해 우호적인 글을 쓴다면, 미국의 국토방위법을 저촉하는 “테러주의에 대한 지원”이라는 범죄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었다.
- 6) 현재 의료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5천만 명은, 2014년부터는 만일 어떤 민영 의료보험에도 들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현재로서는 개인의 경우 한 달에 대략 500달러 정도, 가족의 경우 1,000달러 이상이 든다.
- 7) 미국 정치에서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글의 범위를 너무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공황은 은행가들이든 정부의 규제담당 관리들이든 어떤 엘리트들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는 거의 보편적인 믿음은, [은행, 소비자신용, 부동산 거품, 정부 규제 같은 단순한 부수 현상들 밑에 놓여 있는] “가치의 위기”에 대한 어떤 진지한 분석도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
- 8) 압류 :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대출 원리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은행 또는 대출기관이 취하는 행동
- 9) 퇴거 :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주택소유자나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
- 10) 1930년대 초기에 관해서는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글이 있다. (<http://www.economicpopulist.org/content/unemployed-councils-eviction-riots-and-new-deal>) 2007년 이후 일어난 그와 같은 저항에 대해서는 <Insurgent Notes> 1호에 실린 Henri Simon의 글을 보라. (<http://insurgentnotes.com>)
- 11) 미국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의료 체계를 설명하려면, 그 자체로 하나의 글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보편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다. 2009년에, 5천만 명이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의료비가



“GDP”의 15%에 이르는데, 2020년까지 20%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편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갖고 있는 캐나다는 의료비로 GDP의 10%를 쓴다. 민영 의료보험들과 그들의 “관리 비용”을 제거한다면, 전체 의료비의 20~3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 제약회사들과 정치적 지배세력 사이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보기를 들어, 연방 법은 각 주가 캐나다로부터 값싼 복제약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보편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선호하지만, 주류 정당들과 언론 매체들은 그러한 대안에 관한 토론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David Himmelstein 등이 쓴 *Bleeding the Patient. The Consequences of Corporate Health Care*는 2000년 무렵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지난 10년 동안 상황은 오로지 악화되었을 뿐이다.

- 12) 빅 쓰리의 미국 공장들에 고용된 총 노동자 수는 몇십 년 동안 감소한 반면, 외국의 자동차기업들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 남부에 무노조 공장들을 속속 건설했다.
- 13) 2011년 2~3월 메디슨에서 일어난 이 투쟁에 대해 나는 2개의 기사를 썼다. 하나는 나의 개인 웹 사이트 *Break Their Haughty Power*(<http://home.earthlink.net/~lrgoldner>)에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Insurgent Notes> 4호에 실려 있다.(<http://insurgentnotes.com>)
- 14) 8월 초순, 이 소환 캠페인은 위스콘신 주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적 지위를 끝내는 데 실패했다. 엄청나게 비용을 쓰고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 15)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오바마의 2008년 선거운동 자금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러한 후원에 보답하는 큰 선물 가운데 하나로 ‘노동자 자유선택법’을 제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법이 제정되면 1970년대 이후 입법된, 노동조합 조직화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 가운데 일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당선되고 몇 달 만에 잊혀지고 말았다.
- 16) 교육, 교도관, 공공노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Insurgent Notes> 제1호에 실린 John Garvey의 “철광산에서 쇠창살까지”를 참조하라.(<http://insurgentnotes.com>). 캘리포니아 주의 코코란 주립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은 수감자들끼리 검투사 격투를 하게 했다. 이것이 비디오테이프를 폭로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노조운동은 조사를 중단했다. 교도관들이 전미공무원노조(AFSCME) 조합원들이었기 때문이다.
- 17)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조건과 단식투쟁에 관한 정보들은 트로츠키주의 신문 <노동자 전위>의 2011년 8월 5일자로부터 얻은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감옥과 법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하려면, Christian Parenti가 쓴 책 *Lockdown America*(1999)를 보라.
- 18) 여기서 밀고란, 다른 수감자들에 관한 정보를 교도관이나 교도소 관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9) 보기를 들어, 미국은 기대수명에서 세계 42위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보다 뒤에 있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유아사망률을 갖고 있다.